

## 2017년 고전토론대회 논제

### 소크라테스 재판, 고발(Kategoria)할 것인가 변호(Apologia)할 것인가?

아래의 5개 논점은 플라톤의 <소크라테스의 변론>에서 과연 소크라테스의 사형이 정당한 것인가 여부를 가늠하는 다섯 가지 포인트를 의문문 형식으로 구성한 것이다. 다섯 가지 논점에 응답하면서 소크라테스가 유죄인지, 무죄인지를 주장하는 2000자 안팎의 입론 원고를 작성하되, 다음 사항에 유념하라.

(1) 책에 근거해서 이야기하라: 2차 자료에서 의존하지 말고 1차 원전에서 그 단서를 찾은 후, 필요한 경우 2차 자료를 조사해서 도움을 받는 것이 효과적이다. (2) 저자(화자)의 주장을 단순 요약하지 말 것: 저자의 메시지를 우리가 주장하는 틀(framework)에 맞추어 풀어서 다시 쓰는(rephrasing) 구조화된 논증이 경쟁력이 있다. (3) 저자(화자)와 대화할 것: 하나의 문제를 놓고 마치 저자와 질문을 던지고 답변하듯 이야기를 풀어가면 완성도 높은 입론 원고를 작성할 수 있다. (4) 나의 언어로 소화할 것: 내가 이해하지 못하는 내용과 용어를 사용하지 말고, 내가 이해하는 내용과 용어를 사용해서 나의 몸에 맞는 말로 소화해서 작성할 것. (5) 논점을 시험문제 풀 듯 하나씩 답변하지 말고, 논점 1-논점5를 녹여서 기승전결이 있는, 또는 서론-본론-결론이 있는, 짜임새 있는 입론을 작성할 것.

#### <논점 >

1. 아테네 법정의 소크라테스 재판은 공정했는가?
2. 소크라테스 사형은 소크라테스 자신이 저지른 변론의 오류인가?
3. 소크라테스는 법정 고발된 두 가지 죄를 저질렀는가?
4. 아테네 법정의 소크라테스 재판은 민주주의 vs. 철학, 또는 정치 vs. 철학의 긴장관계로 볼 수 있는가?
5. 소크라테스 재판이 지금 여기에서 재개된다면, 소크라테스는 유죄인가 무죄인가?

#### <토론학습 자료>

1. <아주 위대한 고전> 소크라테스의 변론 해제 <http://classic.ajou.ac.kr>
2. 2017 3.14 브라운 백 강연 자료(첨부PDF파일 참조)
3. 권장 번역본: 소크라테스의 변론은 여러 번역본이 있지만, 다음 두 종류의 번역본을 권장한다.
  - (1) 박종현 역, 서광사, 2003
  - (2) 강철웅 역, 이제이북스, 2014

## 2018년 고전토론대회 예고

### 사회는 계약에 의해 만들어졌는가?

1. 2018년 고전토론은 사회계약이론에 관한 네 권의 고전을 잇달아 읽는다. 그 목록은 다음과 같다. 홉스의 <리바이어던>, 로크의 <정부에 관한 두 논고>, 루소의 <사회계약론> 등이 그것이다. 여기에 한 권을 더 추가한다면 로스의 <정의론>이 그것이다. 이 중에서 홉스의 <리바이어던>을 제외하면 세 권의 고전은 아주 위대한 고전 모듈 111 권에 모두 들어가 있으며, 그 중에서 루소의 <사회계약론>은 2017년 고전 Brown Bag Lectures, 로크의 <정부에 관한 두 논고>와 롤스의 <정의론>은 2018년 고전 Brown Bag Lectures 에서 소개할 예정으로 있다. 홉스의 <리바이어던>은 아주 위대한 고전 목록에 들어가 있지는 않지만, 2016년 고전 자기개발장학에서 핵심 대목을 영문으로 읽고, 번역한 텍스트 자료가 있다. 따라서 2018년 고전토론자료집으로 제공할 문헌자료로는 부족함이 없다.

2. 문제는 접근이 쉽지 않은 고전 4권을 한정된 시간에 독파할 수 있는가 하는 점에 있다. 그래서 2018년 고전토론은 1년 전 예고를 하고, 2017년 1학기에 독서계획을 세우고 2017년 2학기부터 독서활동에 들어간다. 이 독서활동은 고전학습공동체 '다산서원'의 핵심 활동 중의 하나가 될 것이다.

3. 2018년 고전토론의 주제는 "사회는 계약에 의해 만들어졌는가"(가제)다. 물론 이 가제는 향후 더 가다듬어져서 2018년 초에 최종 토론주제 및 대회규칙이 구성적으로 만들어지겠지만, 이 야심만만한 제목, "사회는 계약에 의해 만들어졌는가"는 우리가 사회계약 이론의 틀 안에서 사회공동체의 구성원리를 조망하겠다는 이상의 목표를 가지고 있다는 점을 드러낸다. 사회계약이론은 17세기에서 18세기, 곧 근대세계의 형성기에 좋은 사회의 원리를 놓고 둘러싼 이론의 결정체이지만, 우리는 사회계약이론을 한편으로는 지나치게 도식화하고, 한편으로는 너무나 당연하게 받아들이는 경향이 있다. 근대의 설계자들은 사회계약이론을 그렇게 도식적으로 다루지 않았고, 또한 사회계약이론을 당연하게 받아들이지도 않았다. 그것은 홉스, 로크, 루소와는 달리 데이비드 흄, 애덤 스미스, 존 스튜어트 밀 등 영국 사상가들은 정당화할 수 없는 이론으로 폐기했고, 칸트, 헤겔, 마르크스 등 독일적 전통의 사상가들은 이치에 맞지 않는 이론으로 취급했다. 이러한 흐름에서 보면, "사회는 계약에 의해 만들어졌는가"는 주제는 근대 사상가들이 대 격돌한 광범위한 생각의 전쟁이다.

4. 여기에 근대사회의 구성이 사회계약이든 또는 다른 형태의 결합이든 근대의 기획 자체가 성립될 수 없는 것이라는 니체에서 비롯한 탈근대 사상가까지 가세하면 이 싸움은 어마어마한 싸움이 된다. 이렇게 이 논쟁은 근대 형성기에 일단락되어서 사회교과서에 과거지사로서 정리되어야 하는 사안이 아니라 오늘날까지 지속되는 현안이 된다는 뜻이다. 실제로 개론 류의 요약집이 아니라 원전을 들추면, 거기에는 수많은 논쟁점이 따리를 틀고 있다.

5. 2018 고전토론대회를 위한 기획팀에 참가를 희망하는 학생은 2017 고전토론대회가 진행되는 2017년 봄에서 초여름까지 고전담당교수 연구실(성호관 407호)을 노크할 것. 사회계약 이론에

대해서 예비지식이 없어도 환영한다. 아니, 더 환영 받는다. 한 번 세계 책을 읽어보겠다는 의지만 가지고 있으면 충분하다.